

土種 홍화씨
 興國農産 聯合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전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 지리산지리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여년의 재배 전통
 ● 원조가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통도사 성보박물관 개관

주제별 전시실 · 문화센터 갖춰
 보물등 문화재 3만여점 소장

방마다 성보 가득... 환희심 절로



◇금동아미타삼존상(통일신라).

불보충칠 통도사. 날아갈 듯 세련된 팔각형기외지붕과 눈이 부시도록 하얀 화강암 석축이 조화를 이룬 성보박물관이 11일 문을 열어 통도사는 '성보사찰'이란 새 이름을 얻었다.

5년간의 공사 끝에 개관된 통도사성보박물관은 연건평 1,295평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학예연구실, 유물수장고, 자료실, 보존관리실, 문화센터 등을 갖추고 있다. 장엄한 외부의 건축양식과 내부의 최첨단 시스템이 결합된 성보박물관을 들어서면 방마다 가득찬 성보들이 소리 없이 전하는 법의 향기에 가슴이 벅차 오른다. 통도사 성보박물관을 찬찬히 둘러보다 보면 불교 예술품과 선대의 유물들이 전해주는 환희심에 젖어들게 된다.

통도사성보박물관이 소장한 성보 유물은 보물 11점, 지방유형문화재 34점을 포함한 약 3만여점. 통도사는 박물관 개관과 함께 <통도사성보박물관명품도록>과 <월저 김진조선생기증유물도록>도 발간했다.



◇3만여점의 유물을 소장한 통도사 성보박물관이 11일 개관했다. 개관식에는 월하스님을 비롯 통도사 본원사 스님과 조계종 중진, 김현규 경남도지사등 1만여명이 참석했다.



◇금동보살입상(통일신라). ◇금동보탑(고려).

패물전시실 박물관 내부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이 13미터의 괴불이 눈길을 붙잡는다. 석가여래가 보신불로 나뉜 모습을 표현한 이 장엄한 여래독존탱(1767년 조성)이 상설 전시되는 이곳은 불화전문박물관의 특색을 살려 1, 2층 홀을 연결한 괴불전시실이다. 각 사찰 소재의 괴불을 교체 전시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괴불 전시실은 1년에 한번 친견이 가능한 괴불을 상설 전시해 박물관이 단순한 관광의 장이 아니라 예경과 포교의 장이 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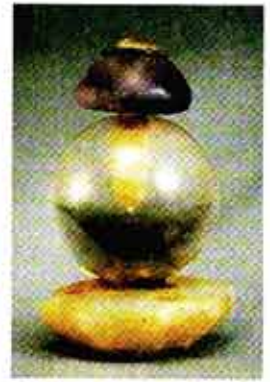
불교회화실 보물 1041호로 지정된 영산전광상탱과 1402호인 대광명전상산불탱을 비롯 불교회화작품들을 최적의 상태로 보존 전시하고 있다. 갈로탱, 사향탱 등 불화들이 일목요연하게 전시돼 있어 한 걸음에 불교회화의 다양성과 도상에 나타난 사상을 알 수 있다.

상설전시실 1층의 상설전시실에는 청동은입사향완, 감지급니묘법연화경 등 보물 11점, 지방유형문화재 34점을 포함한 통도사 전래의 유물을 중심으로 통도사의 역사와 사적은 물론 불교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게 구성했다.

기획전시실 달마도, 서기도병풍 등 역사 속 화가들의 회화를 중심으로 전시하는 기획전시실에서는 개관을 기념해 무형문화재 48호 단청장 고해각스님의 기증 회화와 통도사 소장 명품이 선장 전시되고 있다. 달마도와 서기도병풍, 구름6곡병풍 등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높이 130터의 여래독존탱괴불.



◇우운당 부도사리구(조선, 수정).

보존에 영향을 주는 공기조화 및 습도, 온도조절도 컴퓨터 그래픽시스템에 의해 자동 조절되며 각 층과 실별 통풍관제도 중앙관제소에서 할 수 있게 설치됐다. 무엇보다 박물관 관리가 첨단 시스템을 이용한 관리와 함께 자연풍과 채광을 이용하도록 특수하게 설계돼 있어 과학과 자연이 만나 성보를 안전하게 보관전시하는 바탕이 된다.

효율적 운영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박물관의 사회교육기능을 위해 문화센터를 마련하고 박물관대 한 및 불화그리기, 사경반 등의 각종 문화강좌를 개설하고 필요에 따라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합창단, 꽃꽂이, 외국어반, 연구답사반 등으로 나눠 질 높은 봉사로 운영의 효율화를 꾀하는 한편 재정적 부담도 줄이기 위해 후원단체를 구성하고 있다.

박물관장 범하스님은 "가상영상체험, 터치스크린, 시청각 자료제공 등 전문화되고 내실 있는 박물관이 되도록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또 스님은 "20여 곳에 달하는 전국 사찰 박물관 연합회를 본격 가동해 자료교환, 정보교환 등으로 효율적인 성보박물관의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는 구상도 밝혔다.

천미희 기자(mhcheon@buddhopia.com)



◇연화문원외당(고신라).

기증유물실 선사시대 토기에서 조선시대 청화백자까지 도자기와 먹통, 촛대 등의 다양한 민속품과 청진 이상범 수화 김장기등 근현대회화의 대표작까지 월저 김진조 선생의 기증품을 중심으로 꾸며져 있다. 241점의 기증유물들이 분야별로 전시된 기증유물실은 18일 때로 개관식을 가졌다.

老天유물관 기존의 박물관을 새롭게 단장한 노천(老天) 유물관은 월하스님의 친필 서화와 소장유물들을 한자리에 모은 곳이다. 월하스님의 친필 서화는 물론 공예품과 세계 각국의 불교사찰단이 스님을 예방하고 봉헌한 기념품들을 모아 전시하고 있다.

첨단시스템 통도사성보박물관은 관리체계의 완전 자동화로 첨단 박물관의 면모를 더하고 있다. 중앙감시실에서 각종 전시실의 현황을 파악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는 특수 역화가스도 유물의 손상을 최소화 하며 진화한다. 도난방지시스템도 위험 감지 5분내에 관계자와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장치됐다. 유물의



◇금산사 매향의식에 참여한 미륵향도들이 향나무를 이운하고 있다. 이운된 향나무는 미륵전에 6개월간 보관했다가 10월 부안 격포에 매향된다.



◇스님과 동남동녀들이 향목 이운을 이끌고 있다.

금산사 6백년만에 미륵보살 하생염원 매향의식 재현

현실이 고통스런 사람들은 미래를 꿈꾸게 된다. 개산 1400주년을 맞는 미륵성지 김해 금산사. 천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맑고 아름다운 미래를 지향하며 미륵보살의 하생(下生)을 염원하는 매향(매香) 의식이 6백년만에 재현됐다.

10일 아침부터 꽃향기 가득한 천년고찰 금산사에는 한복을 곁에 차려입은 불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오전 10시 법당에서는 향목의 도착을 알리는 소식이 들려오자 매향의례 입재식이 시작된다. 육박공양물중 하나인 향을 미륵부처님께 올리며 다음날에는 미륵보살을 만나고 3회 3차에서 설법하는 용화회상에 참여하여 왕생하겠다는 굳은 서원을 새운 1천여 불자들의 염불소리는 높기만 하다.

이어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향목이운 의식이 일주문앞에서 펼쳐진다. 전통의식을 재현하는 법주바라지 스님들이 법배와 바라춤을 시연하자 농악대의 경쾌한 화음이 어울려 매향 이운식이 시작된다.

인로왕변과 곤악대, 장엄변, 빗자루를 든 소지가 길을 깨끗이 쓸고, 향탕수를 뿌리는 색수와 법주바라지들이 그뒤를 따른다. 오색연등을 든 동남동녀가 지나가면 선남선녀가 삼색의 꽃잎을 같이 뿌리고 연가미와 증명법사단의 손으로 행진했다. 목탁을 치는 인제스님이 앞장 서고 향목을 실은 옛날 우차가 아람들이 향나무 일곱 덩어리를 싣고가면 공력으로 연결된 미륵향도들이 머리에 향나무를 머리에 이거나 어깨에 둘러매고 뒤를 따른다. 이날 이운된 향목은 진남 장승에서 아송된 풀레가 3m 70cm에 이르는 1천년 수령의 고사목이다.

금산사 개산 1400주년 기념관 앞을 지나자 곤악대의 찬불가 연주가 우렁차다. 미륵향도들은 미륵전 앞에서 미륵부처님께 매향을 고하는 의식을 갖는다.

금산사주지 도연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중생들의 아픔을 풀기위해 매향을 올리니나 지비로서 삼수하시고 모든업장이 소멸돼 일체중생이 미륵세계에 나무토록 해 주십시오"라고 발원했다.

이날 동참한 미륵향도의 명단과 취지 및 매향 장소는 금산사 1400주년 대제비 제막하는 매향기념비에 세겨 후세에 남게 된다. 이운된 향나무는 금산사 미륵전에서 6개월간 보관된 뒤 10월 계곡물과 비닷물이 만나는 지점인 부안 격포에 물을 예경이다. 이렇게 끌은 향나무는 침수향이 되는데 물속에 담그면 가라앉고 태우면 그 음음이 없고 은은한 향이 된다.

매향은 고려말 조선초 미륵하생신앙에 기초하여 도단에 빠진 민중들이 간절한 바람으로 행하였던 향을 물고 물에 담그는 의식. 민중들은 매향의 복덕으로 하생한 미륵불을 만나 도술현 내원중에 들어갈 것을 기원했다.

조선초 이후에는 매향의식이 중단되고 승유역불정벽에 의해 참향은 모두 왕실의 회귀악재로 이용하여 본래의 용도는 사라지고 말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고성 삼일포, 정주, 사천, 양매도, 세미동 5곳에 매향비가 있다. 그러나 참향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사천군 곤양면 홍사리에 있는 매향비는 높이1.6m, 너비1.2m, 두께 1.2m의 자연석으로 석각문에 고려시대 스님을 중심으로 1400여명이 결계하여 향을 물고 불보살에게 내세어 행운과 축원을 기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원우 기자(wwkim@buddhopia.com)



◇고암 이용노의 경주 금강역사상, 1949년작.

문화재급 241점 기증 김진조翁 "많은 사람들과 감동 공유"



성보박물관에 241점의 귀한 유물들을 기증한 월저(月落) 김진조(80세 부산 화천동 김내과 원장)翁. "많은 사람들과 감동을 공유하고 싶었다"는 짧은 말로 유물의 기증 동기를 밝혔다.

그러나 그 짧은 대답의 이면에는 통도사와의 긴 인연이 서려있다. 김옹은 초등학교 5학년 때 통도사로 입산해 경하스님을 거쳐 구하스님의 시봉을 하며 학비를 충당해 공부를 했던 것이다. 구하스님과 교류하는 당대의 예술인들의 예술적 취향을 흠모했던 어린시절, 김옹은 그때부터 예술품에 대한 관심을 키웠다고 술회했다.

"기증한 유물들은 불화, 서화(동서양화 민화 서예 등), 도안, 민속공예 등 다양합니다. 수집의 생활이 담긴 편린들이라거나 할까요. 귀한 것일수록 탐착하기 보다는 여러 사람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김옹은 1920년 울산에서 태어나 경성의학전문학교와 서울대 대학원등을 나와 40여년전 김내과를 개원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임연태 기자(yllim@buddhopia.com)